

## 花卉流通現況과 改善方案

成 潤 根

忠南大學校 經商大 講師, 延世大學校 大學院 博士過程

- I. 序論
- II. 花卉產業의 概況
- III. 花卉產業의 需要展望
- IV. 花卉產業의 流通實態分析
- V. 結論

### I. 序論

#### 1. 問題의 提起

꽃에 대한 需要是 國民所得의 增加에 따라, 生活樣式이나 기호의 變化에 따라, 生活환경의 變화에 따라 증대되어 갈 것이다.

첫째,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꽃에 대한 수요는 증대될 것이다. 최근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국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종래에는 경제적인 여건상 꽃을 즐길 만한 여유를 갖지 못했던 우리 국민도 생활환경美化에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꽃과 푸른 식물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다.

둘째, 생활양식이나 기호의 변화에 따라 꽃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경제가 발전하고 국제화 함에 따라 우리 국민의 생활 습관이나 양식도

고급화, 서구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따라 花卉類에 대한 수요도 증대되고 있다. 즉 어떠한 모임이나 행사에도 필수적으로 화환, 화분 등이 동원되는 등 종래에는 없던 생활습관이 정착함에 따라서 꽃에 대한 수요가 점차 커지고 있는 것이다.

세째, 생활환경의 변화가 꽃의 수요를 증대시킬 것이다. 최근에 이르러 도시생활 공간이 협소해지고 아파트村이 날로 늘어감에 따라 푸른 공간과 푸른 식물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인 아쉬움은 더욱 늘어가게 마련이어서 이에 따라 화훼류에 대한 수요는 커지고 있다.

더우기 '86아시안 게임과 '88올림픽 개최 등 국제적인 큰 행사를 앞두고 있는 우리 나라로서는 우리의 생활환경을 보다 아름답게 가꾸어서 세계인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사회적인 특별한 요구까지 겹쳐져서 화훼류에 대한 수요가 더욱 커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과연 화훼류에 대한 수요는 얼마나 커지고 있으며 앞으로 커질 것인가? 커질 수요에 대응할 花卉流通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어떻게 발전되어야 할 것인가? 本研究는 이러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현재의 화훼유통 실태를 분석하고 그改善方向을究明함을目的으로 한다.

## 2. 研究의 方法

花卉產業의 일반적인概況을 알아보기 위해서 農水產部의 「화훼현황」과 농어촌개발 공사의 「화훼유통현황」 및 사단법인 한국화훼협회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주로 분석대상으로 하였고 화훼유통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 방면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가 거의 없었고 자료와 기록이 불비하였으므로 경기도 고양군 신도읍과 벽제읍 일대의 화훼생산농가 10개소에 대한 設問紙에 의한 청취조사와 서울 남대문 대도꽃상가의 상인 중에서 비교적 市場占有率为 높은 大商 10인을 임의추출하여 면담조사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이에 덧붙여 전국의 생산농가 501명이 株主가 되어 1982년 11월 창립된 서울꽃株式會社의 株主代表를 면담, 청취조사를 수행하였다.

본조사를 통해서 작성된 자료는 統計的인 方法에 의해서 有意抽出된 표본농가와 표본상인에 대한 조사자료가 아니고 단지 일반적인 성격을究明하기 위해서 調查者가任意로抽出한 대상 농가와 상인에 대한 조사자료이므로 이를 가지고全部를 대표한다고 보기에는 많은 制約이 따를 것임을 미리 밝혀둔다.

## II. 花卉產業의 概況

우리 나라 花卉產業의 특징을 몇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生產이 專門化되어 있지 않다.

화훼를 類型別로 나누어보면 切花, 盆花, 花木, 觀賞樹, 種子 등으로 大別할 수 있으며 각

類型別로도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또한 생산농가는 年中 계속되는 市場需要에 응할 수 있도록 그의 생산종목을 조정하다 보니 여러 종류의 화훼를 少量씩 時期別로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고양군 벽제읍과 신도읍 일대 화훼농가 10戶에 대한 調查結果에서도 대부분의 화훼농가가 5~15종의 여러 가지 品目을 재배하고 있었다.

많은 品種을 少量씩 個別농가가 재배하고 있다는 뜻은 品種別로 專門生產團地 형성이 어렵다고 볼 수 있고 이는 곧 栽培技術의 고도화를 위한 制約要因이 될 뿐만 아니라 市場化에 있어서도 規格化, 等級化 등을 어렵게 하고 大量系統出荷의 有利性 확보에 많은 제약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 2) 經營이 零細하다.

화훼생산의 경영규모는 대단히 零細하다. 1981년의 경우 전체 화훼농가 중에서 600명 이하 규모의 농가는 총 2,096호로서 전체의 67.8%에 달했으며 2,400명 이상의 大農층은 불과 321호로서 전체의 10.4%였다. 이를 年度別로 보아도 零細경영의 비율은 거의 비슷하다(表 1)。

경영의 零細性을 團場面積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71년부터 1981년까지의 기간 동안에 농가호수는 1.73배, 團場面積은 2.28배, 温室면적은 3.04배 증가했는데 戶當 團場면적은 0.3ha에서 0.4ha로 그 영세규모 자체에는 큰 변동이 없었고 온실면적은 戶當 0.07ha에 불과했으며 그나마 簡易비닐 温室이 대부분이어서 그 영세경영적 성격을 알 수 있다(表 2)。

### 3) 大消費地 중심으로 생산농가가 분포되어 있다.

1981년의 화훼농가를 각 시도별로 나누어 보

表 1 연도별 재배규모별 농가호수

단위 : 戶

年 度	100명 이하	101~300명	301~600명	601~1,200명	1,201~2,400명	2,401~4,800명	4,800명 이상	合 計
1977	339	624	584	522	387	258	184	2,898
1978	257	469	487	376	296	167	119	2,061
1979	251	462	486	385	317	166	114	2,181
1980	426	564	596	435	390	197	125	2,733
1981	570	776	750	367	309	184	137	3,093

資料：「화훼편람」，농수산부，1982.

表 2 花卉園場 면적과 温室면적

年 度 别	農家戶數 (戶)	재 배 면 적 (ha)					합 계	戶當 면 적 (ha)			
		露 地	溫 室					露 地	溫 室	合 計	
			영 구	가 설	기 타	합 계					
1971	1,786	469				74	543	0.26	0.04	0.30	
1972	2,631	614				66	680	0.23	0.03	0.26	
1973	2,424	834				111	945	0.34	0.05	0.39	
1974	2,215	825				111	936	0.37	0.05	0.42	
1975	2,446	979				91	1,070	0.40	0.04	0.44	
1976	2,445	1,003				77	1,080	0.41	0.03	0.44	
1977	2,898	1,591				90	1,681	0.55	0.03	0.58	
1978	2,161	1,174	15	51	6	72	1,246	0.54	0.03	0.57	
1979	2,181	1,087	15	46	37	98	1,185	0.50	0.04	0.54	
1980	2,733	1,099.6	43	119	18	180.4	1,280	0.40	0.07	0.47	
1981	3,093	1,014.1	54	160	11	225.1	1,239.2	0.33	0.07	0.40	

자료：上揭書，農수산부

表 3 시도별 재배농가 호수와 경지면적, 1981

단위 : ha

시 도 별	재 배 농가호수 (戶)	구 성 비 (%)	포 장 면 적			戶當 평 균 포 장 면 적		
			露 地	溫 室	合 計	露 地	溫 室	合 計
서 부	울 산	837 251	27.1 8.1	31.7 34.8	79.0 22.8	110.7 57.6	0.04 0.14	0.09 0.09
대 구	49	1.6	31.0	1.0	32.0	0.63	0.02	0.65
인 천	67	2.2	10.5	3.7	14.2	0.16	0.05	0.21
경 기	735	23.8	413	40	453	0.56	0.06	0.62
강 원	28	0.9	8.1	1.3	9.4	0.29	0.05	0.34
충 북	49	1.6	35.1	0.4	35.5	0.71	0.01	0.72
충 남	67	2.1	58.1	2.1	60.2	0.87	0.03	0.90
전 북	229	7.4	116	3	119	0.51	0.01	0.52
전 남	183	5.9	74	11	85	0.40	0.06	0.46
경 북	42	1.4	29.7	1.1	30.8	0.71	0.02	0.73
경 남	495	16.0	153.7	50.4	204.1	0.31	0.10	0.41
제 주	61	1.9	18.4	9.3	27.7	0.30	0.15	0.45
합 계	3,093	100.0	1,014.1	225.1	1,239.2	0.33	0.07	0.40

자료：上揭書，農水產部

면 총농가호수 3,093호 중에서 대소비시장인 서울을 중심으로 한 서울 및 경기지구에 전체의 50.9%에 해당하는 1,572호가 있었고 부산을 중

심으로 한 부산, 경남지구에 전체의 24.1%에 해당하는 746호가 있었다. 다시 말하면 전체의 75%에 해당하는 화훼재배농가가 서울과 부산이

라는 큰 소비시장 부근에서 花卉營農을 하고 있는 것이다(表 3)。 이러한 현상은 화훼가 大都市 소비시장의 近郊농업 형태로 발전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表 3>에서 지적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사실은 전국 대부분의 농가가 温室보다 露地栽培 면적 이 많았는데(戶當 平均 면적 0.4ha 중에서 露地面積 0.33ha) 이는 集約的 經營이 안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製品 出荷시기와 出荷量을 市場與件에 맞춰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생산자의 施設能力 不足현상을 말해 준다. 즉 露地栽培를 주로 하기 때문에 市場수요는 대체로 계절에 관계없이 일정한데 반해서 어떤 경우에는 洪水出荷의 경우도 있을 것이고 端境期에는 市場價格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供給物量이 달리는 경우도 없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表 4 年度別 花卉栽培農家

年 度	총 농 가	단위 : 戶	
		전업농가	부업농가
1971	1,786	799 (44.7)	1,007 (55.3)
1972	2,631	906 (34.4)	1,445 (65.6)
1973	2,424	905 (37.3)	1,519 (62.7)
1974	2,215	851 (38.4)	1,364 (61.6)
1975	2,406	947 (38.7)	1,499 (61.3)
1976	2,445	842 (34.4)	1,603 (65.6)
1977	2,898	833 (28.7)	2,065 (71.3)
1978	2,161	804 (37.2)	1,357 (62.8)
1979	2,181	907 (41.5)	1,274 (58.5)
1980	2,733	1,399 (51.2)	1,334 (48.8)
1981	3,093	1,683 (54.4)	1,410 (45.6)

( )안은 比率임。

자료 : 上揭書, 農水產部

#### 4) 專業農化하는 추세에 있다.

趣味栽培로 시작한 화훼산업은 農家副業적인 성격을 띠고 발전하다가 수요가 보다 크게 증대되는 추세를 보이기 시작하면서부터 점차 花卉專業化的 형태로 발전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즉, 1971년부터 1979년까지 전체 花卉農家 중에서 40% 수준에 지나지 않았던 화훼전업 농가수

는 1981년도에 이르러서는 전체 화훼농가 호수의 54.4%에 해당하는 1,683호로서 絶對數나 相對數에 있어서 많은 증가 추세를 보였다(表 4)。

### III. 花卉產業의 需要展望

화훼산업은 1980년대에 이르러서 그 生產額이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즉 1971년에 비하여 10배, 1979년에 비하여 2배의 생산증가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를 연도별 生產增加率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면 前年度 生產액 대비 매년 5~20%의 증가세를 보이다가 1973년도에는 73.8% 1977년도에는 80.5% 1980년도에는 81.5%의 증가율을 보였다. 다시 이를 79년과 80년을 비교하여 보면 총생산액에 대해서는 1.8배가 증가되었고 切花에 대해서는 금액으로 1.7배, 수량으로 7배가 증가되었으며 盆花로서는 금액으로 4.6배, 수량으로 65배가 증가되었다. 또한 球根數, 花木數, 觀賞樹 등의 발전속도도 엄청나게 크다(表 5)。

이러한 비약적인 生產액 증가는 生產농가의 專業化 경향과 함께 미루어 볼 때 중요한 경제적인 의미를 가진다.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림 1 국민소득과 화훼 수요량의 패턴 : 假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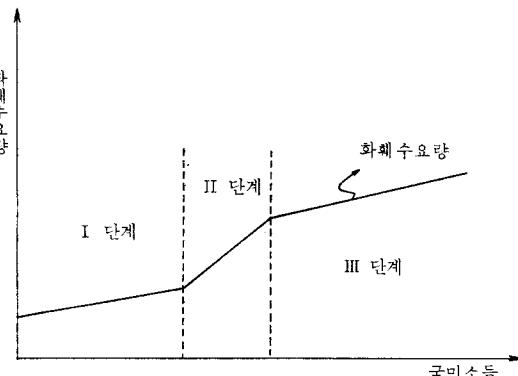


表 5 연도별 화훼생산 현황

단위 : 100만원

연도	생산액 합계	前年對 比증가 율(%)	切 花		盆 花		球 根		花 木		觀 賞 樹		種 子	
			수량 (千本)	금액	수량 (千本)	금액	수량 (千球)	금액	수량 (千株)	금액	수량 (千株)	금액	수량 (千本)	금액
1971	2,207		48,031	395	739	98	521	9	4,113	340	9,371	1,364	60	1
1972	2,638	119.5	39,024	422	993	119	556	16	8,516	354	28,753	1,716	125	11
1973	4,584	173.8	40,048	507	2,846	153	724	26	3,730	528	14,766	3,350	185	17
1974	5,251	114.6	43,960	610	1,876	113	707	29	6,784	787	16,045	3,710	61	2
1975	6,716	127.9	26,698	390	969	277	409	20	8,040	529	17,779	5,466	184	34
1976	7,135	106.2	26,190	556	531	228	2,261	30	13,456	636	19,738	5,647	257	39
1977	12,880	180.5	23,239	737	1,038	374	143	21	6,011	1,095	203,828	10,648	148	5
1978	11,201	85.9	51,361	2,304	687	411	442	25	3,323	1,115	13,444	7,344	154	3
1979	11,764	105.0	46,674	2,061	1,271	722	780	37	2,398	923	11,451	7,952	230	49
1980	21,351	181.5	329,186	3,469	82,203	3,338	1,330	192	104,399	1,788	35,606	12,471	77	19
1981	20,010	93.7	57,026	3,494	81,818	1,524	1,116	177	2,460	1,746	9,661	12,996	47	31

資料 : 上揭書, 農水省부

表 6 日本家計調査에 의한 화훼소비 상황

단위 : 엔

區 分	1965	1970	1975	1978	1979	1980
全 國	1,206	1,926	4,158	5,451	5,873	6,289
全 都 市	1,346	2,074	4,273	5,608	6,040	6,492
大 都 市	1,739	2,635	5,174	6,527	7,037	7,036
中 都 市	1,314	1,976	4,035	5,492	5,847	6,528
小 都 市 <sup>1)</sup>	1,048	1,665	3,793	4,893	5,212	5,837
小 都 市 <sup>2)</sup>	894	1,486	3,462	4,866	5,646	6,226
町 村	692	1,317	3,615	4,712	5,083	5,330

註 1)은 인구 5~15만의 도시

2)는 인구 5만이하의 도시

자료 : 日本國總理府統計局

假說의 하나는 「화훼의 수요는 國民所得이 일정한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소득이 어떤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그 수요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하는 점이다(그림 1).

〈그림 1〉은 국민소득과 화훼 수요량과의 관계를 假說的으로 그려본 것인바 수요량의 증가속도에 따라 세 단계로 구분해 보았다. 〈그림 1〉의 구분방법에 따라서 보면 우리 나라는 1980년에 이르러서 Ⅱ단계 진입을 시작하는 時點에 와 있고 日本은 이미 1970년에 Ⅱ단계 진입을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表 6).

日本의 全國 家口當 평균 화훼소비 상황을 보면 1965년에 가구당 연간 1,206엔을 소비하였고

1970년에는 159.7%가 증가한 1,926엔을 소비하였으며 다시 1975년에는 1970년에 비해 215.8%가 증가된 4,158엔을 소비하였다. 따라서 1970년부터 Ⅱ단계 진입이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1980년에는 1975년보다 141.6% 증가된 6,289엔을 소비하여서 그 소비증가추세는 대폭 완화되었다.

또한 가계별 소비실태를 도시별로 나누어 보면 大都市일수록 中小都市보다 화훼 소비액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화훼소비에 대한 資料가 없으므로 화훼생산액과 가구수를 중심으로 가구당 소비액을 계산해 보면 1971년도에 연간 386원을 생산 소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다시

表 7 韓國가구당 평균 화훼류 소비액

年 度	화훼생산액 (백만원) <sup>1)</sup>	종가구수 (千戸) <sup>2)</sup>	평균소비액 (원) <sup>3)</sup>	지 수
1971	2,207	5,714	386	100.0
1975	6,716	6,754	994	257.5
1977	12,880	7,008	1,839	476.4
1978	11,201	7,256	1,543	399.7
1979	11,764	7,511	1,566	412.1
1980	21,351	7,969	2,679	694.0

註 1) 農水產部, 「화훼현황」.

2) 경제기획원, 「한국통계연감」.

3) 當年度 생산액이 전부 當年度에 국내에서 소비되었다고 假定함.

1975년에는 257%가 증가된 호당 994원, 1980년도에는 694%가 증가된 호당 2,679원이 소비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해에 비로소 1965년의 日本수준에 근접하는 소비실태를 보이고 있다 할 것이다(表 7).

또한 세계 각국의 국민 1인당 切花소비액을 비교하면 네덜란드, 서독, 스웨덴 등 西歐諸國의 소비액이 가장 많았으며 일본은 서구제국의 20% 정도, 미국의 40% 정도밖에는 소비가 되고 있지 않았고 한국은 일본의 소비액에 비해 5% 정도의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또한 국가에 따라서 국민소득 수준의 차이, 국민성의 차이 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국민 1인당 소득증가 속도와 화훼류에 대한 수요증가 속도는 비례적으로 높아가는 것을 알 수 있었다(表 8). 특히 <表 8>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한국의 경우

1976년에 국민 1인당 切花소비액은 16원이었으며 비약적으로 화훼산업이 발전했다는 1981년의 경우 切花소비액은 겨우 90원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 나라도 경제발전에 따라 국민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화훼에 대한 수요는 적어도 1970년의 일본 수준까지만 간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20배 이상 크게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을 것이다.

## 2. 輸出展望

花卉類는 勞動集約的이고 그 外貨稼得率이 높다는 점에서, 이웃 일본이 큰 輸入國이란 점에서, 또한 外國으로부터의 國內產 화훼류의 수입 희망량이 크다는 점에서, 그리고 國內自生種인 東洋蘭(寒蘭, 風蘭 등)의 조직 배양으로 대량생산하여 수출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망한 수출산업으로 育成할 수 있다고 본다.

연도별로 우리나라의 수출입 실적을 살펴보면 수출은 주로 切花, 切葉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졌으며 수출액이 수입액보다 절대적으로 많았으나 1981년부터 全品目이 輸入自動承認品目으로 바뀜에 따라서 수입액이 거의 수출액에 펼쳐할 만큼 갑자기 늘어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表 9>).

表 8 세계각국의 국민 1인당 切花 소비액 비교

국 별	1人當 GNP <sup>1)</sup> (U\$)	1970년		1975년		5년간 GNP증가율 (%)	5년간 切花소비액 증가율(%)
		切花소비액 <sup>2)</sup> (U\$)	(원)	1人當 GNP (U\$)	切花소비액 (원)		
일 본	1,975	1.80	873	4,466	3.62	1,755	226.1
미 국	4,820	9.77	4,738	7,173	15.46	7,498	148.8
영 국	2,232	2.45	1,188	4,181	4.65	2,255	187.3
네 델 란 드	2,441	8.62	4,180	6,056	23.15	11,227	248.1
서 독	3,056	11.80	5,730	6,803	20.15	9,772	222.6
스 웨 덴	4,104	14.00	6,790	8,840	19.25	9,336	215.4
한 국 <sup>3)</sup>	765	16	1,637			90	214.0
							562.5

註 1) 「국제 농림수산통계연보」, 농촌경제연구원, 1982.

2) C.N.Smith *Flower Business Blossom*, 1976.

3) 농수산부, 「화훼현황」의 생산액 1976년과 1981년을 비교 작성.

表 9 花卉類의 年度別 수출입 실적

단위 : 1,000달러

국 별	수 출					수 입				
	1977	1978	1979	1980	1981	1977	1978	1979	1980	1981
切花, 切葉類	924	2,977	1,968	2,622	2,549	11	15	217	123	97
球根類	7	—	—	—	—	10	9	143	318	347
種子	8	18	11	23	45	32	94	175	254	278
其他	123	251	173	191	55	28	25	150	428	1,398
合 計	1,062	3,246	2,152	2,836	2,649	81	143	685	1,123	2,120

資料：農水產部

表 10 수출대상국별 화훼류 수출현황, 1980

단위 : 美달러

국 별	切 花	素 材 類	接 蕊	산 植 物	합 讀	비 율
일 본	—	2,499,539	—	64,808	2,564,347	91.8
네 렐 란 드	—	3,230	95,751	9,324	108,305	3.8
사우디아라비아	—	3,304	—	—	3,304	0.1
말 레 이 지 아	—	—	—	1,811	1,811	0.1
싱 가 풀	—	—	—	18,254	18,254	0.6
파 키 스 탄	27,502	—	—	—	27,502	1.0
미 국	—	69,777	—	1,245	71,022	2.5
合 計	27,502	2,575,850	95,751	95,452	2,794,645	100.0
비 율		92.2				

資料：貿易協會

表 11 主要國別 화훼류 수출입실적, 1980

단위 : 1,000달러

국 별	수 출(A)	수 입(B)	비율(B/A)%
일 본	515,516	2,094,233	406.2
홍 콩	140	2,732	1,691.4
싱 가 풀	6,014	1,528	25.4
네 렐 란 드	1,016,394	105,371	10.3
미 국	35,466	111,948	315.6
영 국	23,582	125,942	534.1
서 둑	17,076	832,126	487.3
프 랑 스	39,521	129,173	326.8
한 국	2,836	1,123	39.6

資料：農水產部

수출된 화훼류를 수출 대상국별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1980년도 총수출액 중에서 91.8%에 해당하는 美貨 2,564,347달러가 日本으로 수출되었고 기타 네델란드 3.9%, 미국 2.5% 등의 순서였으며 수출액 중에서도 素材類가 92.2%로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특히 對日本 수출의 경우 素材類와 산 植 物을 수출하고 切花는 전연 수출이 되지 않았다(表 10)。

그러나 日本에 대한 輸出額은 우리 나라가 외국에 수출하는 화훼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는 있지만 1980년도 日本이 輸入한 화훼류 총액 2,094,233千달러에 비하여 겨우 0.12%에 불과한 영세한 금액이었다(表 11)。

참고로 일본이 1980년도에 수입한 切花類를 수입 대상국별로 나누어 보면 (表 12)와 같다. 즉 일본은 대만으로부터 국화, 글라디올러스, 파초일엽 등을 거의 100% 수입하고 있는데 대만은 1975년에 對日本 화훼류 수출액이 113,788千엔이었으나 1980년도에는 1,172,248千엔으로 5년 동안에 그 수출액이 10배나 증가했다. 파초일엽, 앤스리움 등은 기후조건에 의해서 制約을 받는다 할지라도 국화, 난초, 글라디올러스, 카네이션, 장미 등을 우리 나라가 生產適地임에도 불구하고 대만 등의 국가가 對日本 수출을 활발히 증가시키고 있었던 기간 동안 우리 나라는

表 12 日本의 主要國別 切花輸入現況, 1980

단위 : 本

區 分	국 화 난 초	안스리옹	클라리올러스	카네이션	장 미	파초일엽	양 치 류
總 輸 入 量	30,306,090	36,085,448	4,384,701	2,218,333	1,917,269	279,245	1,278,343
주요수입대상국	대 만 타 일 랜 드	하 와 이	대 만	클 렘 비 아	이 스 라 엘	대 만	마 국
수 입 양	30,301,218	26,579,039	4,380,798	2,216,665	1,261,920	—	1,278,323

자료 : 農水產部

表 13 國別 品目別 輸入希望量(推定)

品 目 别	수 입 회 당 국	수 입 회 망 량	국 내 생 산 량	비 고
수 선	일 본	10%	0	국내생산 不足
나 팔 나 리	서 독	30萬球	0	"
장 미	미 주	100萬本	10萬本	台本 및 品種미 확보
선 인 장	베 네 란 드	1,000萬個	30萬個	施設不足

자료 : 農水產부

表 14 최근 5년간 作物 植付面積의 变動추이, 1977--1981

단위 : 1,000ha

年 度	미 곡	백 류	잡 곡	두 류	서 류	채 소	특용작물	과 수	봉 밭	수원지	시설작물	기타작물	합 계
1977	1,230.0	545.6	64.9	326.5	127.3	293.9	121.6	94.2	41.4	15.4	—	172.4	3,033.2
1978	1,229.7	575.4	54.9	313.8	112.6	275.7	121.7	94.2	35.0	13.8	—	174.2	3,001.1
1979	1,233.2	489.1	49.3	276.8	94.8	338.7	118.9	95.7	31.6	10.8	4.9	164.6	2,908.6
1980	1,233.0	360.4	52.7	255.5	92.4	359.2	105.8	99.1	27.1	10.1	11.4	158.4	2,765.2
1981	1,223.9	374.4	50.5	272.0	91.1	365.2	89.6	100.2	22.2	14.7	14.0	156.2	2,774.2

자료 : 「農林統計年報」, 1982, 農水產부

단 한 건의 수출도 이루지 못하였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좋은 種苗만 育成하여 훌륭한 品質로 栽培하고 수출촉진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인다면 화훼류는 훌륭한 對日本수출상품으로 발전할 수 있으리라 본다.

한국산 화훼류에 대한 외국의 關心度도 최근 높아지고 있는 경향을 보이는 데 농수산부의 推計에 따르면 상당한 量의 화훼류에 대한 수입회망량이 들어오고 있으나 국내생산량이 부족하거나 施設이 부족하여 이에 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表 13)。

최근 5년간의 우리 나라 作物別 식부면적을 보면 미미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채소류와 과수재배 외에는 곡류 등 全作物의 식부면적이 減少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수입가격이 대단히 싼 小麥, 옥수수, 大豆 등에 대한 재배면적이 줄고, 대신 技術集約的이고 勞動집약

적인 다른 農產物을 생산함으로써 農民들의 營農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農作物의 栽培양상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麥類, 豆類 등의 급격한 재배면적 감소추세와는 달리 채소, 과수면적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것은 이들에 대한 內需 및 수출수요가 크지 않을 것으로 農민들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表 14).

內需와 輸出需要가 다 같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화훼재배는 따라서 새로운 戰略的 價值가 있는 營農種目의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VI. 花卉產業의 流通實態 分析

### 1. 流通概況

內需市場에서 花卉類는 얼마나 流通되고 있는

表 15 주요 도시별 1일 평균 화훼류 유통실적, 1981

단위 [物量 : 단, 千  
금액 : 1,000원]

區	分	서 울		부 산		대 구		광 주		인 천		대 전		합 카	
		物量	金額	物量	金額	物量	金額	物量	金額	物量	金額	物量	金額	物量	金額
切	국화	8,500	3,400	3,000	1,200	1,500	600	1,000	400	600	240	400	160	15,000	6,000
	카네이션	7,000	2,100	3,000	900	1,500	450	1,000	300	500	150	500	150	13,500	4,050
	장미	3,000	1,350	1,000	450	400	180	300	135	200	90	100	45	5,000	2,250
	구근류	5,000	3,500	2,000	1,400	1,000	700	800	400	500	350	700	490	10,000	6,840
	숙근초	1,600	560	800	280	300	105	300	105	100	35	200	70	3,300	1,155
	1, 2년초	4,000	1,400	1,500	525	1,000	350	800	280	500	175	500	175	8,300	2,905
	素材類	3,000	1,500	600	300	200	100	100	50	50	25	50	25	4,000	2,000
盆花	小計		13,810		5,055		2,485		1,670		1,065		1,115		25,200
	盆花	8,000	12,000	3,000	4,500	2,000	3,000	800	1,200	700	1,050	500	750	15,000	22,500
	盆栽	600	9,000	400	6,000	100	1,500	100	1,500	50	750	50	750	1,300	19,500
合	小計		21,000		10,500		4,500		2,700		1,800		1,500		42,000
	비율		51.7		23.1		10.4		6.7		4.2		3.9		100.0

註 1) 農水產部「花卉便覽」에서 變型作成

2) 物量 1단은 10송이 또는 10대.

가? 全國 주요 도시의 화훼 종류별 유통실적을 보면 6대 도시의 하루 평균 流通금액은 67,200 千 원이며 이중 切花類가 37.5%에 해당하는 25,200千 원, 盆花類가 62.5%인 42,000千 원이었다. 切花類 중에서는 국화, 카네이션, 장미, 球根類 등이 大宗을 이루고 있었고 盆花로 거래된 額數는 切花 전체액과 같은 수준으로 22,500千 원이었고 盆栽는 19,500千 원이었다.

또한 화훼 유통액을 도시별로 나누어 보면 서울에서 총유통액 중에서 51.7%에 해당하는 34,810千 원이 유통되고 있었고 부산에서 23.1%에 해당하는 15,555千 원이었으며 다음이 대구(10.4%) 광주(6.7%) 順이었고 서울, 부산이 全花卉 유통액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表 15>.

## 2. 화훼유통경로와 중계시장 분석

화훼유통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화훼류 중계시장, 즉 중간도매상은 大消費市場인 서울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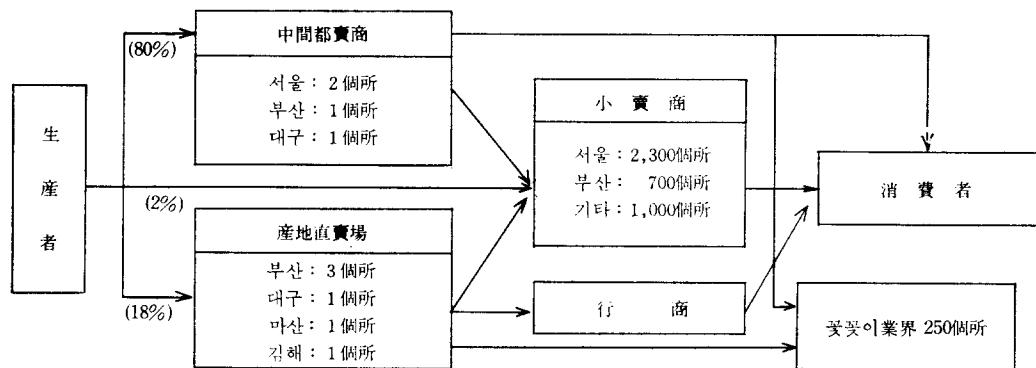
부산지역에 偏在되어 있다. 즉 切花의 경우 생산된 전체 物量의 80% 이상이 거래되는 중간도매상은 서울 2개소, 부산 1개소, 대구 1개소이며 盆花의 경우에도 서울 3개소 부산 1개소 대구 1개소로서 全國에서 생산, 유통되는 대부분의 화훼류는 서울과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거래되고 있다. 1983년 3월 31일 현재 우리 나라의 화훼 유통경로를 살펴보면 切花는 80%가 중간 도매상을 거쳐서 거래되고 있고 18%가 產地直賣場을 거쳐서, 나머지 2%는 생산자가 바로 小賣商에게 판매하는 경로를 택하고 있었다. 또한 盆花의 경우에는 생산된 물량의 45%가 中間도매상을 거쳐서 유통되고 있었고 30%는 생산자로부터 바로 小賣商으로 연결되고 있었으며 20%는 產地直賣場에서 유통되고 있었다(그림 2).

全國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物量이 流通되고 있는 서울지구의 경우를 유통단계별 유통물량으로 나누어보면 切花의 경우 全流通物量의 90% 정도가 대도 花시장(남대문)에서 일차로 거래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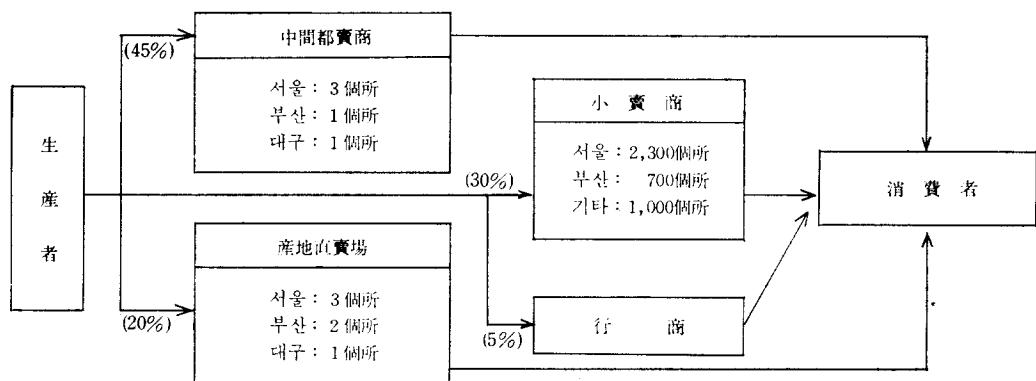
그림 2 우리 나라 화훼 유통경로

1983년 3월 현재

## 1. 切花



## 2. 盆花



資料: 1) 農水產部, 「花卉便覽」, 1982.

서울 꽃 주식회사

2) 生產者로부터 1次流通經路 비율은 서울 꽃 주식회사의 推定值임.

며 5%가 인창꽃상가에서, 나머지 5%가 생산자가 직영하는 花房 등 소매상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가장 많은 物量의 切花가流通되고 있는 대도꽃시장에 일차적으로 모여진 각종의 꽃은 꽃꽂이회로 40%, 화방 등 소매상에게 30%, 호텔 등 큰 기관에 대한 固定 납품업자에게 10%, 행상 8%, 교회 등 행사용 7%, 소비자에게 小賣 5% 등으로 분배되고 있었다.

한편 盆花의 경우에는 생산자가 중간도매상을 거치지 않고 직접 花房에게 거래하는 경우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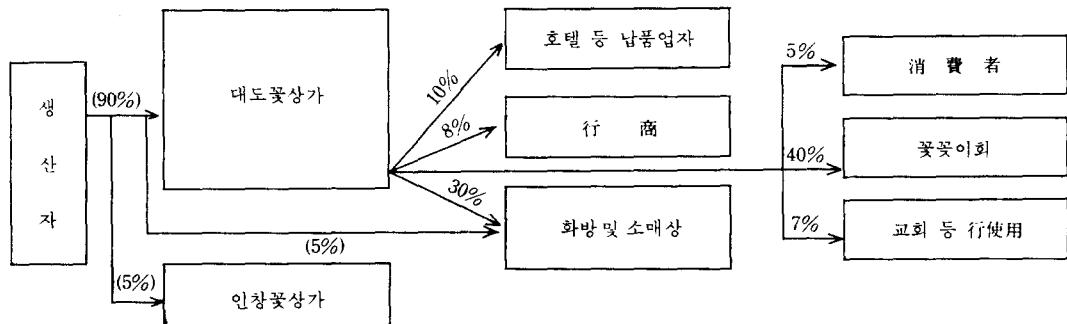
30%, 서초동 꽃상가에 도매하는 경우가 25%, 대도꽃상가 20%, 한산지 하꽃상가 10%, 산지 직매장 10%, 행상 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切花流通의 경우에는 중간도매상을 거쳐 거래되는 것이 대부분이었는데 반해 盆花의 경우에는 생산자가 중간도매상을 거치지 않고 花房과 직접 거래하거나 產地 直賣場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직거래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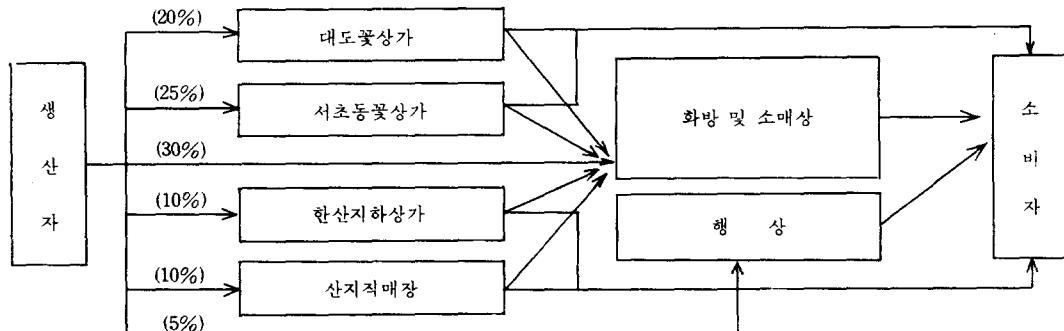
우리 나라의 꽃시장은 中間도매시장의 성격을 띠고 있는 市場이 서울 4개소, 부산, 대구 각

그림 3 서울 지구 花圃 유통경로(中間都賣商 수준)

## 1. 切花



## 2. 盆花



資料：대도상가 상인 조사 및 서울 꽃 주식회사의 推定值。

1개소 등 도합 6개소이며 單協을 중심으로 한 生產者 直販場이 全國에 걸쳐서 9개소, 小賣 전문 상가가 서울 1개소로 분포되어 있다(表 16)。

화훼 중계시장인 中間 도매상은 그 시장규모나 취급규모가 영세할 뿐만 아니라 취급품목도 전문화되어 있지 않아서 中繼市場 원래의 기능인 需給調節, 價格形成 등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 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대도꽃시장의 경우 전체 1,000명 賣場에 215인의 商人이 있으므로 상인당 4.7평의 점포면적을 가지고 있고 꽃의 鮮度維持 및 보관을 위한 냉장고 등 시설을 갖춘 상인은 全無하다는 점에서 그 施設의 零細性을 능히 엿볼 수 있다. 또한 去來方法도 競賣 등 公開競爭의 方法에 의한 需給調節 및

價格形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生產者의 委託販賣 형식에 의한 去來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大都꽃시장의 꽃 매취방법은 이 시장의 오래된 慣行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즉 切花의 경우 거의 全量이 위탁매매되고 있었으며 輸入洋蘭 등 특수한 품목에 대하여는 현금매취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극히 적은 일부분에 불과하였다. 위탁매매방식에 의한 위탁판매 수수료는 평균 15% 수준이었다. 盆花의 경우에는 거의 全量을 현금매취하는 방법이 시행되고 있었는데 이 경우 판매 이익금은 평균 30% 수준으로서 위탁판매의 경우보다 그 수수료가 월씬 높았다.

위탁된 切花는 그 物量이 모두 팔리고 난 후 계산서가 작성되어 精算되는 것이 常例였는데

表 16 우리 나라 꽃 市場 현황

1983년 3월 현재

市 場 名	지 역	판매방법	규 모(명)	최 금 구 분	상인수	비 고
남대문 대도꽃시장	서 울	도·소매	1,000	切花, 盆花	215	切花, 盆花, 現金買取
한 산 지 하 꽃 상 가	서 울	도·소매	50	切花, 盆栽	38	
인 창 상 가	서 울	도·소매	800	切花, 盆花	30	切花: 현금매취
서 초 동 꽃 마 을	서 울	도·소매	도로변 4km	盆花, 盆栽	200	
창 선 동 꽃 시 장	부 산	도·소매	100	切花, 盆花	30	
동 대 구 꽃 시 장	대 구	도·소매	100	切花, 盆花	8	
남 문 꽃 상 가	서 울	소매	380	切花, 蘭, 盆栽	50	
남부 단 협 공 판 장	서 울	직매	100	盆花		
천 호 단 협 공 판 장	서 울	직매	100	盆花		
영 남화훼조합판장	부 산	직매	100	切花		
석 대 꽃 공 판 장	부 산	직매	100	盆花		
남 산 동 꽃 공 판 장	부 산	직매	50	切花, 盆花		
칠 성 꽃 시 장	대 구	직매	500	切花, 盆花		
초 선 대 꽃 공 판 장	김 해	직매	100	切花		
마산단협 꽃 공판장	마 산	직매	50	切花		

資料 : 사단법인, 한국화훼협회 제공

표본조사농가 중 切花生產을 하는 7호의 농가는 그가 委託販賣한 꽃 대금을 평균 5일이 지나야 商人으로부터 받게 된다고 하였다.

表 17 切花 生산농가의 대금회수 방법

정 산 방 법	농가수	비 고
출하즉시지불	0	1회출하물량과 판매상황에 따라
3일~5일	2	서 대금 정산 일수가 변동됨
5일~7일	5	
7일 이상	0	

盆花의 경우에는 서초동 상인이나 대도시장 상인들이 농장까지 와서 직접 現物을 평가한 후 農場渡로서 販賣되는 것이 常例였고 선인장, 판 상수 등도 상인들의 來訪에 의한 農場販賣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으로 표본농가조사 결과 나타났다(表18)。

화훼가 市場化됨에 따라 여러 가지 費用이 각 流通단계에 따라서 발생하게 되는데 生產者로부터 中間都賣商에 이르기까지의 諸費用을 비용별로 그 부담자를 살펴보면 切花의 경우 모든 비용이 농가부담으로 되어 있었다. 즉 포장비, 상하차비, 운반비 심지어 賣場까지 운반하는 지게 삼까지 생산농가 부담이었으며 賣場에서 판매 중

시든 물건은 물론 賣場 진입 중에 폐기된 물건까지 모두 流通減耗로 인정하여 이를 代金정산시에 판매량 계산에서 除하고 있었고 이렇게 판매된 꽃 값의 15%는 상인의 판매수수료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농가에게 지불되고 있었다.

그러나 盆花나 관상수의 경우에는 농장에서 현금판매의 형태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이 경우 농가에서는 포장비와 상차비만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은 모두 상인이 부담하는데 이런 경우에 상인들의 판매 수수료는 30%였다(表 18)。

대도꽃시장의 상인은 그 거래 규모에 따라 大商, 中商, 小商으로 나눌 수 있는데 大商의 경우에는 비교적 大農經營을 하는 화훼 전업농가를 대상으로 하여 꽃을 구매하고 있었고 中商, 小商은 年一期作品目(농가부업 형태 畜裏作 포함)을 생산하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하여 꽃을 구매하고 있었다. 따라서 大商은 평균 6~7인의 농가를 그의 단골 去來先으로 확보하고 있는데 반해 中小商은 10~12인 정도의 농가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조사에서는 市場佔有力이 높은 비교적 大商을 對象으로 하여 수행

表 18 花卉농가의 화훼류 판매방법과 유통비용

화훼 종류	조사농가수 <sup>1)</sup>	판매방법	상품인도장소	유통비율별부담자						평균상인판매수수료
				포장비	상차비	하차비	유통감보비	운반비		
절화	8	위탁판매	점포	농가	농가	농가	농가	농가	15%	
분화	3	현금판매	농장	농가	농가	상인	상인	상인	30%	
선인장	1	"	농장	농가	농가	상인	상인	상인	30%	
관상수	2	"	농장	농가	농가	상인	상인	상인	30%	

註: 1) 실제 조사농가수는 10戸이었으나 조사농가 중에서  
절화+분화, 분화+관상수 형의 농가가 있었으므로 농가수는 13호로 됨

表 19 표본조사 상인의 거래농가 수

거래농가수	상인수	비고
3~5농가	3	전업적 화훼 대농농가는 연중 출하가 단절되지 않도록 경영을 하므로 소수의 농가로서도 능히
6~7농가	6	연중 상행위가 가능하다함.
8~10농가	1	
계	10	

되었으므로 한 상인당 농가수는 비교적 적었다. 中間도매상은 그의 단골농가를 그의 예하로 계속 거느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生產前渡金을 지불하고 있었다. 이 생산전도금은 생산 개시기에 상인이 농가에게 無利子로 지급하였다가 그 대상농가가 생산물을 出庫하여 이것이 모두 팔릴 때까지 분할 정산되는 형식인데 大商의 경우에는 이 금액이 상당히 커고 中小商의 경우에는 평균 500만 원 선이거나 그 이하\*라고 했다.

表 20 표본 조사상인의 전도금 지불상황

생산농가 전도금 총액	상인수
500萬원 이하	1
500~1,000萬원	2
1,000~1,500萬원	0
1,500~2,000萬원	1
2,000~2,500萬원	4
3,000~3,500萬원	2

이 생산전도금은 그것이 慣行的으로 상인과 농가간에 생산 개시기에 빌려주었다가 상품 출하기에 분활, 상환되고 다시 개시기에 빌려주는 일종의 상인권리금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점, 無

利子 응자라는 점, 차용증서 등 서류의 발행 없이 돈이 授受되고 있다는 점, 화훼생산농가(특히 切花)는 거의 대부분이 상인으로부터 생산 전도금을 받고 있다는 점, 그 전도금의 액수가 생산농가의 경영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500萬원 정도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3,000萬원을 상회하는 비교적 高額의 前渡資金이라는 점 등이 다른 農作物에서 볼 수 없는 花卉만의 특이한 生產과 流通상의 특성으로 볼 수가 있을 것이다(表 20)。

이러한 상인의 전도자금에 의한 生產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效果를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생산농가는 자기 생산물의 품질만을 良質로 하여 안정시키면 그 제품의 販路나 委託판매에 따르는 代金回收의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왜냐하면 生產者는 자기의 生產品을 그가 이미 生產前渡資金 형태로 돈을 받아 쓴 바 있는 중간상인에게 납품함으로써 자기의 부채를 갚을 수 있기 때문이고 상인은 그의 前渡資金을 회수하기 위해서라도 생산자가 委託시킨 제품의 市場化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販賣活動을 벌

\* 서울 꽃 주식회사의 推定.

일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생산자는 자기가 생산한 제품의 販賣價格을 前年度 수준으로 예상하여 꽃을 생산하고 이를 그가 負債를 지고 있는 상인에게 委託販賣 시킴으로써 그의 生産비 상승에 따른 販賣價格의 상승을 실현시키는데 無力하며 商人的 입장에서는 委託된 꽃을 단기간 안에 販賣시키는데 주된 關心을 기울일 뿐 生產者의 生産비 상승을 커버할 수 있는 販賣價格의 上昇에는 無關心하게 된다. 이 결과 生產品의 販賣價格은 전년도와 비교해서 별로 변동하지 않게 될 것이다.

실제로 1979~1982년의 4년간에 걸친 생산자의 판매가격은 季節的으로는 출하성수기와 단경기에 걸쳐 등락의 변동은 있었지만 같은 時期에 出荷되는 꽃의 市場價格은 거의 변동이 없었고 그 費用의 上昇趨勢를 커버하기 위해서 생산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경영의 대규모화 밖에는 없었으며 조사농가 10호는 평균적으로 매년 30%정도 그의 경영규모를 늘이고 있었다.

세째, 販賣者の 販賣수수료가 상당히 높다. 대도시장 꽃상인들의 판매 수수료는 위탁판매시에 총판매액의 15%, 현금매취 판매시에 총판매액의 30%였는데 委託판매시는 점포에 까지 상품이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제반 비용과 판매 중에 폐기처분되는 등 총유통감모에 따른 비용도 모두 생산자가 부담하는 상태에서 도매자 수수료가 15%라는 사실은 그가 이미 생산자에게 無利子로 상당액의 前渡資金을 지불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고서라도 상당히 높은 것이 사실이다.

네째, 상인과 生產農家와의 수직관계가 硬直性을 띠고 이루어지고 있다. 생산농가는 商人으로부터 상당한 액의 生产전도자금을 빌어쓰고 있는 입장인지를 보다 유리한 條件에 그의 제품

을 販賣할 수 있는 機會가 생겨도 既存 상인에게 빌려온 그의 前渡자금을 일시에 청산하지 못하는 한 그 機會를 포기하고 既去來先에게 그의 제품을 나쁜 條件으로라도 販賣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前渡자금의 존재는 花蕙유통의 改善沮害要因의 하나로 지적할 수 있겠다.

대도꽃시장의 調査상인 10인의 지역별 거래농가수는 <表 21>과 같았는데 商行爲를 연중 계속 지속시키기 위해서 全國 花蕙 生产지역에 그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表 21 大都 花市場 10人상인의 地域別 거래농가수

지 역 명	농가수(戸)	비 율
서 울	8	13.6
경 기	21	35.6
경 남	12	20.3
부 산	8	13.6
제 주	4	6.8
경 북	3	5.1
기 타	3	5.0
합 계	59	100.0

<表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大都꽃시장 상인과 연결되어 있는 全國의 花蕙재배농가의 약 반수는 서울과 경기지역 농가이고 나머지 반수는 경남, 부산, 제주 등 전국에 걸쳐 분포되어 있는 바 위탁판매되고 있는 자기 제품의 판매상황을 판매시마다 생산자가 賣場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생산농가는 상인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自己제품에 대한 販賣精算書로 만족하여야 한다는데 불만과 말썽의 素地가 남게 되는 것이다.

참고로 이웃 日本의 꽃시장 去來實態를 보면 全國의 268개 都賣시장 중에서 58%에 해당하는 156개 都賣시장이 競賣方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었고 16%에 해당하는 42개부가 競賣와 委託方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었으며 우리 나라처럼 委託販賣의 방법에 의해서 전적으로 운영되고 있

表 22 日本 花卉시장의 去來形態

단위 : 個, (%)

全國花卉장수	競賣	相對	경매, 상대병용	경매, 위탁병용	경매, 위탁 상대, 병용	상대, 위탁병용
268 (100)	156 (58.2)	26 (9.7)	19 (7.1)	42 (15.7)	22 (8.2)	3 (1.1)

資料：太田弘著, 「花卉生産과 流通」, 1976. p. 110

表 23 日本 전국 시장수수료별 市場數

區分	全國市場數	10%미만	10%	11%이상	不明
市場數(個所) 구성비 (%)	268 (100.0)	23 (8.6)	229 (85.4)	12 (4.5)	4 (1.5)

資料：太田弘著, 「花卉生産과 流通」, 1976. p. 50

表 24 대표적인 切花 5種의 市場 慣行上 等級과 規格

등급	율립 (판매 단위 : 10송이)		글라디올러스 (판매 단위 : 10대)		장미 (판매 단위 : 10송이)		카네이션 (판매 단위 : 20송이)		국화 (판매 단위 : 10송이)						
	규격	판매 <sup>1)</sup> 가격	규격	판매 가격	규격	판매 가격	규격	판매 가격	규격	판매 가격					
	길이	상태 (원)	길이	상태 (원)	길이	상태 (원)	길이	상태 (원)	길이	상태 (원)					
상	30cm 이상	꽃크고 병반없음	4,000	100cm 이상	대굵고 깨끗	8,000	60cm 이상	꽃크고 깨끗	3,000	50cm 이상	꽃크다	3,000	60cm 이상	꽃크고 단정	3,000
중	20~ 30cm	꽃크고 병반없음	3,000	80~ 100cm	굵기중정 도깨끗	6,000	40~ 60cm	꽃크고 깨끗	2,000	30~ 50cm	꽃中	2,000	40~ 60cm	꽃中 깨끗	2,000
하	10~ 20cm	대가늘고 병반없음	2,000	50~ 80cm	대가늘고 깨끗	4,000	20~ 40cm	대가늘고 깨끗	1,000	20~ 30cm	꽃小	1,000	30~ 40cm	꽃小 태가늘다	1,000
등외	10cm 이하	병반 있음	1,000	50cm 이하	바이러스 병반	2,000	없음	농장에서 파기		20cm 이하	꽃빈약	500	30cm 이하	대가늘고 휘어짐 병반있음	500

註 1) 판매가격은 1982년 12월 현재 경포도 上品도매가격임

2) 단위, 규격, 등급기준은 상인조사와 농가조사에서 밝혀진 자료임

는 市場은 1개소도 없었다(表 22).

쉬웠다(表 24).

또한 日本의 花卉시장 판매수수료를 보면 全國 花卉시장 268개 중에서 85.4%에 해당하는 229개의 시장이 10%의 수수료를 받고 있었고 10% 미만의 수수료를 받는 시장은 8.6%, 11% 이상을 받는 시장은 4.5%로서 우리 나라 切花의 販賣수수료 15%는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表 23)。

### 3. 花卉의 等級과 規格

생산된 花은 어떤 單位로 판매되며 어떤 等級 기준으로 그 質的인 差異가 매겨지는가?

대도꽃시장의 商人과 生產農家 조사에서 밝혀진 花의 規格과 等級에 관한 관행은 상당히 주관적인 것이라서 等級에 따라 價格 수준이 상당한 차이가 나므로 객관적인 기준치의 설정이 아

### 4. 花 값의 계절변동

꽃의 上品등급 條件은 (1) 대가 짙을 것, (2) 꽃이 크고 병반이 없을 것, (3) 잎이 병반 없이 깨끗할 것, (4) 품종 본래의 색상을 가질 것, (5) 대가 휘어지지 않고 곧을 것, (6) 무게가 무거울 것 등인바 출하 성수기에는 이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되어 생산자와 판매자간에 분쟁의 소지가 늘 있었다.

盆花의 경우에는 생산자와 판매자가 農場에서 적당한 수준의 값을 합의하여 매기므로 上, 中, 下品에 대한 어떤 客觀的인 등급 기준치의 발견이 어려웠다.

최근 4년간 花값은 평균적으로 말해서 거의 일정했으나 그 출하 성수기와 단경기 등 계절의

表 25 대표적인 花卉 5種의 月別出荷量과 가격변동 상황, 1982

月別 花種別	1月		2月		3月		4月		5月		6月	
	출하량 (%) <sup>1)</sup>	판매가 (원)	출하량 (%)	판매가 (원)								
튜울립	5.0	4,000	10.0	3,000	60.0	2,000	20.0	2,000	없음	2,000	30.0	1,000
글라디올러스	0.5	9,000	1.0	7,000	3.0	5,000	4.0	3,000	10.0	2,000	30.0	1,000
카네이션	10.0	2,000	30.0	5,000	10.0	2,000	10.0	2,000	30.0	3,000	7.0	1,000
장미	5.0	3,000	5.0	3,000	5.0	3,000	5.0	2,500	10.0	1,500	15.0	1,000
국화	3.0	3,000	3.0	3,000	4.0	2,500	5.0	2,500	10.0	1,500	15.0	1,500
평균	4.7	4,200	9.8	4,200	16.4	2,900	8.8	2,400	12.0	2,000	13.4	1,125
月別 花種別	7月	8月	9月	10月	11月	12月	합계 및 평균					
	출하량 (%)	판매가 (원)	출하량 (%)	판매가 (원)	출하량 (%)	판매가 (원)	출하량 (%)	판매가 (원)	출하량 (%)	판매가 (원)	출하량 (%)	판매가 (원) <sup>2)</sup>
튜울립	없음	없음	없음	없음	2.0	5,000	3.0	4,000	100.0	2,320		
글라디올러스	20.0	1,000	10.0	2,000	10.0	2,500	1.0	7,000	0.5	10,000	100.0	1,905
카네이션	0.5	1,000	0.5	1,000	0.5	1,000	0.5	2,000	0.5	2,000	100.0	3,115
장미	10.0	1,000	15.0	1,000	10.0	1,000	10.0	2,000	5.0	3,000	100.0	1,725
국화	8.0	700	8.0	700	15.0	700	20.0	300	5.0	1,500	4.0	2,500
평균	7.7	925	6.7	1,175	7.1	1,300	8.1	1,700	2.7	3,700	2.6	4,300
											100.0	2,049

註 1) 上品 1단의 점포인도 가격임

2) 同別出荷量에 의한加重平均値임

資料: 표본 조사 농가와 상인에 대한 조사자료에서 추정하였음.

차이에 따라서 꽃값은 상당히 큰 폭으로 변동하고 있었고 출하량도 연중 상당히 변했다.

대표적인 꽃 5종에 대한 꽃값(점포도 도매가)은 <표 25>와 같았다.

튜울립은 3월, 4월이 出荷성수기로써 총 출하량의 80%가 이 기간에 생산, 출하되고 있으나 가격은 1단당 2,000원으로서 단경기에 해당하는 11월 중의 가격 5,000원에 비하여 현저하게 쌌다. 글라디올러스의 경우에는 출하성수기인 6월에는 1단당 1,000원 밖에 하지 않다가 단경기인 12월, 1월에는 단당 10,000원까지 그 값이 올랐고 카네이션의 경우에는 그 수요가 비교적 큰 입학, 출업시즌인 2월과 어버이 날이 있는 5월에 집중 출하되고 있었으며 그 가격도 단당 3,000원으로서 가장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장미의 경우에는 출하성수기인 5월과 8월에 그 가격이 가장 낮았고 단경기인 11월에서 2월 까지의 冬節期에 가장 높았다. 국화의 경우에도 동절기에 비싸고 하절기에 싼 경향을 보였다.

綜合的으로 말하면 꽃의 종류에 따라서 그 差異가 없는 것은 아니나 꽃값은 12월, 1월, 2월 등 동절기에 평균 1단에 4,200~4,300원으로 가장 높았고 6월, 7월, 8월 등 하절기에 평균 925원~1,175원으로 가장 낮았으며 出荷量은 동절기에 전체물량의 15.1%가 하절기에 27.8%가 출하되고 있었다.

## 5. 切花 流通減耗量

화훼류 가운데에서 切花는 가장 新鮮度가 중시되는 상품이며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 이르기 까지 꽃의 종류에 따라 최단 3일부터 최장 8일 이내에 판매되지 아니하면 모두 폐기처분되어야 하는 특수한 성격의 상품이다. 따라서 폐기율은 상인이나 생산자 다 같이 큰 關心을 기울이는 일인데 이는 보통 상품의 出荷量, 출하당시의 시장매기(賣機), 出荷된 상품의 質 등에 의해 서 크게 영향을 받는다(<表 26>).

꽃의 종류에 따라서 폐기율은 다소 차이가 나

表 26 생화유통일수 및 유통감모량(중간도매상 수준)

品 目	유 통 일 수 <sup>1)</sup>	폐 기 율 <sup>2)</sup>	品 目	유 통 일 수	폐 기 율
국 화	8일	5%	백 합	6일	2%
카 네 이 선	6일	5%	프 리 지 어	4일	5%
장 미	3일	10%	숙 균 안 개	4일	2%
튜 블 립	3일	2%	다 알 리 아	2일	10%
글라디올러스	5일	3%	아 이 리 스	4일	3%

註 1) 유통일수는 賣場도착일에서 부터 不買되어 폐기되는最大日字를 상인으로부터 조사

2) 폐기율은 생산자로부터 그들의 경험을 평균한 것임. 지만 평균적으로 말해서 생산자가 出荷한 풋은 5% 이상이 不買되어 폐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1981년의 경우 총 切花생산액 3,494백 만원 중에서 新鮮度가 유지되는 기간 중에 不買되어 폐기처분되거나 운반도중 荷傷에 의해 폐기되는 物量은 175백 만원에 이른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다.

이라 본다.

과거에 있어서도 數次에 걸쳐 花卉流通改善을 위한 試圖가 있었으나\* (1) 既存상인의 반발, (2) 商人의 前渡資金 등의 理由로 해서 個別 생산자가 行動統一을 못했고 前渡資金을 대체할 流通金融의 支援이 빈약, (3) 商品의 規格化不在로 價格形成機能이 미흡, (4) 公販業務의 未熟으로 운영이 원활치 못했다. (5) 農民의 認識不足 (6) 法的, 제도적 缺乏가 全無했다 등의 理由로 모두 실패하고 말았다.

이러한 失敗要因 해소에 노력하는 한편 지명된 指定都賣人으로 하여금 花卉流通改善을 전담할 수 있도록 制度 면이나 資金 면에서 지도, 지원함이 바람직한 방향이라 생각한다.

## 2) 生產地流通改善의 場으로서 產地直賣場을 育成해야 한다.

우리 나라 花卉生產은 일반적으로 말해서 기후나 토양조건 등 환경요소를 도외시하고 대부분의 花卉產地가 消費地 중심의 都市近貯에 현재되어 있는바 특히 花圃는 施設의존도가 높고 기후와 토양이 花圃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는 適地適產主義에 의한 團地化造成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이를 지원하기 위한 產地직매장의 육성이 절실히 요청된다.

현재에도 農協單位組合이 主體가 되어 全國에 총 8개소의 產地直賣場이 운영되고 있진 하지만 이를 더욱 擴大, 發展시켜서 產地價格形成, 流通마진의 절감, 略格安定化의 實現, 輸送에 의한 時間的 낭비 및 荷傷 등에 의한 폐기율 감소 등

\* ① 馬山원예조합이 1971년도에 150평 규모의 切花菊 共販場을 개설, 운영하였으나 2개월 만에 폐쇄하였다. ② 高陽郡 農協이 1973년도에 切花와 盆花의 賣場을 50평 규모로 개설하였으나 5개월 만에 폐쇄하였다. ③ 京鄉화훼협동조합이 1978년도에 切花共販場을 200평 규모로 개설, 운영하였으나 3개월 만에 폐쇄하였다.

## VII. 結 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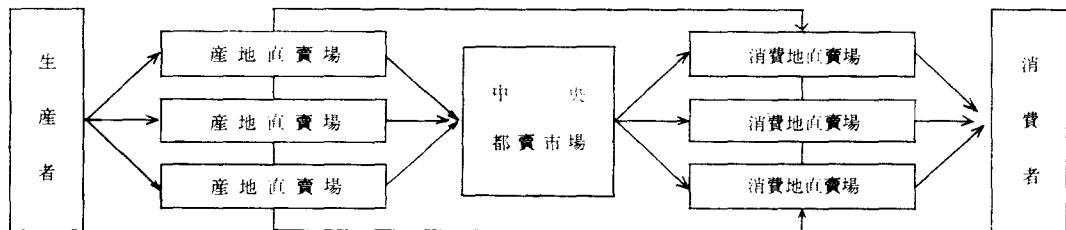
### 1. 花卉流通改善을 위한 提言

1) 法定 花圃도매시장의 육성과 시장제도의 확립이 필요하다.

전전한 花圃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花圃생산농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花圃 도매시장이 하루속히 開場되고 指定도매인이 지명되어 첫째, 公正去來의 실현을 위하여 생산자와 구매자로부터 다같이 不信되어온 현재의 委託去來方式을 止揚하고 現代的 競賣제도를 채택하여야 하고 둘째, 現在의 높은 販賣手數料를合理的으로 낮추어야 하며 세째, 현재의 다소 主觀的인 等級기준을 보다 客觀化, 科學化시켜야 할 때이다.

法定 도매시장은 1984년 6월 완공예정인 가락동 농수산물 종합도매시장에 가능하다면 설치하는 것이 「農安法」의 취지상 합당한 것이라 보이며 指定도매인은 花圃농가의 協同組合의인 性格을 가진 團體가 맡도록 하는 것이 보다合理的

그림 4 花卉流通市場의 바람직한 發展模型(案)



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산지 地方市場의 育成이 중앙도매시장 육성 못지 않게 긴요한 것이다〈그림 4〉.

서울과 地方市場이 다같이 발전하면 성수기와 단경기 간의 화훼값의 등락 진폭도 어느정도 완화시킬 수 있어서 生產者나 消費者 모두에게 바람직한 流通體系가 될 것이며 앞으로 화훼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시키려 할 때에도 地方市場의 수집, 공판기능은 더욱커질것으로 생각된다.

### 3) 流通시장환경의 造成.

능률적인 유통을 위해서는 產地市場이전 중앙도매시장이전 간에 적절한 시장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첫째, 流通施設의 設置를 들 수 있다. 화훼류의 수집과 분산의 中繼地이며 價格形成과 需給調節의 機能을 행하여야 하는 중앙도매시장에는 필수적으로 넓은 판매장과 荷役, 駐車, 切花貯藏庫 등이 갖추어져야 하고, 產地直賣場의 경우에도 集荷場, 간이 저장시설, 수송, 포장시설 등이 갖추어져야 出荷조절과 流通能率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流通시설은 全無한 실정인 바 이에 대한 投資, 특히 大資本이 소요되는 저온냉장고 설치 및 出荷된 상품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넓은 販賣場 設置資金에 관해서는 정부가 장기저리 자금으로 지원하거나 직접 투자하는 등 화훼시장 육성을 위한 與件 조성에 앞장 서야 할 것이다.

둘째, 流通금융의 지원을 들 수 있다. 대부분의 切花생산농가는 화훼 중간상인에게서 前渡資金을 받아서 營農을 하고 있는바 이 前渡資金 때문에 생산농가는 商人과의 거래에서 弱勢에 몰려서 去來主導權을 상실하고 있고 生產者團體力의 발휘도 곤란한 것으로 보였다.

세째, 시장 정보조사와 홍보기능이 強化되어야 한다. 화훼류의 계절적 가격의 큰 振幅은 市場정보에 個別 농민이 너무 어둡기 때문에 어림짐작에 의한 生產과 出荷가 이루어지는 데서 그 큰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화훼류에 대한 價格動向과 需給관계를 정기적으로 調查, 分析하여 이를 全生產農家에게 홍보함으로써 出荷調整과 計劃生產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아울러 外國의 수출시장을 조사, 분석하여 수출개발 전략품목의 산정보를 個別농가에게까지 알려줄 수 있는 시장정보 수집과 홍보기능의 必要性은 새삼 강조할 必要도 없을 것이다.

### 参考文獻

- 農水產部, 「花卉便覽」, 1982.
- 農漁村開發公社, 「花卉流通資料便覽」, 1983.
- 朴吉淳, 「화훼유통실태와 농협의 역할에 관한 조사보고」, 1982. 農協專門大學.
- 太田弘, 「花卉生產과 流通」, 1976. 東京明文書房
- C.M.Smith, 「Flower Businesses Blossom」, 1976.
- 農水產部, 「農村統計年報」, 1982.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國際農林水產統計年報」.
- 한국화훼협회, 「花卉協會報」, 1982년도 刊行物.